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누가복음 9장 22절 - 24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십자가를 지는 길, 생명을 누리는 길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 안에는 자기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나'가 생겼으며, 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해지려는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담당하셨으며,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해답이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도울 수 없었듯,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도 사람은 보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구원이 우리에게 실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이 나를 위한 구원의 실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 느낌이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도 은혜를 얻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이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거나 의지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과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온전하게하시는 분이

“

교회를 위하든지 가정을 위하든지 십자가를 지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버려야 되는 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더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 본문 주일설교 (10/4) 중 -

”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므로 자기 뜻만 이루어 달라고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햇빛과 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이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듣고 받아들이는 양식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자기 힘으로 살아온 존재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혼돈하고 공허한 마음이 점차 정돈되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 귀하게 들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질병이나 어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즉시 없애시기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셨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며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맡은 수고를 불공평한 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잘못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만족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으며, 성도의 참된 생명과 만족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 9:24)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Losing Your Life to Find It

Jesus had just finished telling his disciples that he would suffer, be rejected, be killed, and rise on the third day. Then He turned to the crowd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Why would Jesus say this? To understand, we need to go back to the very beginning.

God made us from dust to be clay jars that hold His presence. But the serpent lied to Adam and Eve and told them to eat the fruit and become like God. They ate it, and from that moment people wanted to be in charge of their own lives as their own masters and gods. This stubborn "me" is not just someone who does bad things. It is the heart of the problem and the original sin. Pride, death, and corruption are woven into this "self", which is why we resist the gospel even when we know it is true, and why we easily binge on every other story the world tells us while growing sleepy over a few verses of Scripture.

We cannot fix ourselves. Religions have tried with rules, rituals and disciplines about working hard, but no one has ever lifted himself out of the pit by human effort. In the beginning, the earth was dark, empty, and without shape. It could not make its own light. God spoke, and light came. In the same way, we need God's Word to reach us from outside ourselves.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God did just that. His sinless Son became a man, took our old, sinful selves to the cross, and rose again to make us new. The Father who made me is God, the Son who redeems

me is Jesus Christ, and the One who makes me whole is the Holy Spirit. Just as we could not help God when He created us, we cannot contribute anything to the salvation Jesus has already obtained. It becomes real to us when the Holy Spirit opens our hearts to understand and believe the truth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Why, then, do so many believers fail to enjoy what is already finished? The Bible says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 of Christ, not from our good works. We do not get faith by quitting bad habits first before we walk into church. The church is a gathering of sinners who cannot quit, and who need God's living Word to do what they cannot. Faith means becoming one with Jesus Christ: believing that when He died and rose, we did too, and accepting that this is the reality of our salvation, even on days when we do not feel it.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re not a distant even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me. In Him, my sin and my "old self" were dealt with on the cross, and I receive all by faith. Whether I am saved is not decided by my feelings or thoughts. What matters is receiving by faith what Jesus declared on the cross: "It is finished". Even our hymns are not sung to earn grace, but sung with joy because we have already received it.

But hearing requires a quiet heart. If we keep banging on God's door with a long list of wants, we cannot hear Jesus knocking back. God already gives good gifts to everyone, like rain, sunshine, and breath itself. So prayer is less about asking for things and more about seeking Christ, because when we have Him, we have all we need. The Bible calls

this being "poor in spirit", and it is what repentance really is: not a daily apology for each mistake, but turning away from the "old self" that caused the trouble in the first place.

Now we can understand what Jesus meant. To deny ourselves does not mean to punish ourselves or to become perfect by willpower. It means giving up the idea that "I am in charge and that I can save myself". The cross He bore alone for our sins is finished. The cross we carry is different. It is the hardship, loss, or suffering that God uses to put our "old self" to death and bring new resurrection life.

Paul prayed three times for his thorn to be removed and God replied that His grace is sufficient and His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Salvation does not mean our lives become easy and comfortable, but it gives our suffering a purpose. Every cross carried in obedience takes something from us and replaces it with a measure of Christ's life. This world is not our final resting place. It is the workshop where new people are made, and our true home is still ahead.

So when we face family arguments, unexpected trials, or our own weaknesses, we can see them as part of that workshop to learn to rely on Christ alone. When we finally run out of our own strength, Christ's life can flow through us. This week, let go of one thing you are holding onto to stay in control, and let Christ bring healing to someone near you, whether in your home, your church, or your neighborhood.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유치부실
유년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

